스님이 감독인 사찰축구팀과 신부님이 감독인 성당 축구팀이 겨루면 누가 이길까?

15일 첫 촬영에 들어가는 영화 '보리울의 여름'(제작 강제규필름)속에서의 결과는 무승부. 아니 애초부터 이 두 팀간의 경쟁에는 의미가 없었다. 축구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삶을 보여 주자는 게 이민용 감독(45)의 기획의도였기 때문이다.

## 사찰·성당팀 '둘에서 하나'로 영화 '보리울의 여름' 촬영 시작

# 축구로 펼친 화합·상생 그려

'보리울의 여름'은 우남 스님이 감독으로 있는 '보리울' 마을의 동네 아이들 팀과 서울서 시골성당으로 부임한 젊은 김 신부의 수녀원 내 보육원팀이 서로 경쟁하다 읍내의 도대표 축구부 아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서로 팀을 합쳐 결전을 벌인다는 내용.

보수적이고 엄격한 수녀역에는 5년만에 스크린 나들이를 하는 장미희씨, 젊은 김 신부역에는 차인표 씨가 각각 캐스팅 됐다. 하지만 영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남 스님역은 이직 캐스팅이 안돼 감독과 스탭이 머리를 맞대고 적임자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극중 우남 스님은 시나리오를 쓴 이만희 작가(48·동덕여대 교수)가 '축구하는 스님'으로 유명한 제주도 약천사 주지 성공 스님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점도 귀를 솔깃하게 한다.

이민용 감독은 "우남 스님역에는 안성기, 최민식, 조재현 등 거물급 스타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스케줄 때문에 캐스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40대 이상의 남자 연기자중에서 걸쭉하고 톤이 굵은 경상도 사투리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인물을 고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감독은 "우남 스님역의 배우가 결정되면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만희 작가와 함께 제주도 약천사로 내려가 2~3일 동안 머물며 성공 스님의 캐릭터 연구에 몰두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 주인공역 실제모델 약천사 성공 스님 촬영지 김제 귀신사… 옛 풍취 잘 보존

실제로 극중 우남 스님은 코믹하면서도 선적인 내공이 겸들여진 이중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영화속에서 우남사팀과 축구 시합을 하기로 한 날 비가 내려 김 신부가 우남 스님을 찾아가 연기할 것을 부탁하자 우남 스님의 코믹한 선 법문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고(go)는 고지요" 하면서 거절한다.

극중에서 우남 스님이 기거하는 우남사의 실제 촬영지는 전북 김제의 귀신사. 소박하면서도 옛 풍취가 그대로 잘 보존돼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변 경관이 빼어나 극중 사찰의 이미지와 잘 들어 맞는다는 것이 스탭진의 설명. 귀신사 주지 무여 스님도 영화 포교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귀신사 인근에는 수류성당과 하율초등학교가 있어 성당과 사찰, 초등학교가 등장하는 영화 속 이미지와 절묘하게 맞는다.

영화 내용도 두 종교를 소재로 다루다 보니 시나리오 작가도 이민희 교수가 선정됐다. 이 작가는 1975년 전북 김제 금산사로 출가한 경력이 있으며, 파계 후에는 가톨릭 신자인 부인과 만나 세례를 받고 결혼하는 등 불교와 가톨릭 두 종교를 모두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년전 결성된 한국영화축구단 '아리랑'의 단장일 정도로 축구광인 이민용 감독은 특유의 너털 웃음을 보이며 "사찰·성당의 연합팀과 읍내의 도대표팀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이끈 우남 스님의 히딩크 어퍼컷 골 세러모니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 개봉 전에 스님들과 신부님, 스텝진들과 함께 축구시합을 벌이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리울의 여름'은 부산영화제 개막에 맞춰 11월 14일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보리울의 여름' 촬영지 사진 앞에 서 있는 이민용 감독.

## '부디즘' 테마 남성복 의상展

### 우영미 씨 파리 루브르박물관서

남성복 브랜드 '솔리드 옴므' 대표이자 패션디자이너인 우영미(44)씨가 2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남성복 컬렉션'에서 '부디즘을 테마로 한 의상전'을 열었다.

우영미씨는 "'이브생로랑'이나 '크리스찬디올' '루이비통' 같은 유명 브랜드와 차별화하려면 동양에서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선(禪)적인 분위기의 불교를 테마로 한 의상들은 분명히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충분한 소재"라고 이번 테마를 설명했다. 그러나 "패션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보고 느끼는 것"이라면서 "서양인들이 아무런 설명없이도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던함에 자연스럽게 불교를 담아야 하는 만큼 외형은 서양, 소재는 불교로 풀어보았다"고 덧붙였다.

우영미 씨는 파리나 밀라노 등 주요 컬렉션 참가 경험은 없지만 1997년부터 파리 남성복 전시회(Sehm)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세계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영기대사의 '종도가'를 화제로 부처의 참선 모습을 형상화 한 '적(寂)'

## 석용진 씨 대구서 11번째 문인화展

# 담백·고전적 기품 풍겨

문인화의 품격과 고졸(古拙)한 맛을 우지하며 심물론(心勿論)적 침하에 입각한 신기운의 필묵운동을 전개해 온 석용진 씨(46)의 11번째 문인화전이 대구 대림당화랑에서 3일 열린다.

얼룩이 배이고 접은 자국이 선명한 삭은 느낌의 종이와 묵은 삼베조각보의 빛깔을 연상케 하는 바탕 위에 수척해 보일 정도의 가는 필선으로 유려하게 쓴 화제(畵題) 글씨는 담백한 맛과 더불어 고전적인 기품마저 들게 한다.

### 빛바랜 한지 인두로 다려 수묵으로 처리 '대숲에서' 한액자에 다양한 소재·배경

30여점에 이르는 이번 작품들은 제작 방법상 세가지로 구분된다. '허선(虛船)', '택치(澤雉)', '무용(無用)', '애련(愛蓮)' 등은 종이를 빛바랜 고지(古紙) 맛이 나게 인두로 다림질한 후 그 위에 수묵으로 처리하거나 화제를 썼다. '대 숲에서', '숲 속에서 길을 잃다' 등은 한 액자에 다양한 소재나 배경을 앉혔다. 또 흰 화선지에 현대적인 기법으로 화조를 그린 '연(熱)'도 눈여겨 볼만하다.

손병철(서예평론가)씨는 "석씨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통문양이나 도자문양, 새, 꽃 등은 얼핏보면 공간 배열이 서로 무관한 듯 해 보이지만 화제의 위치와 함께 치밀한 현대적 감각의 구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석용진씨는 99년 한국문제작가초대전에 이어 2001년에는 한국 서예 정예작가 10인에 선발되기도 했다.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문화강좌

### '산사 선식' 무료공개강좌 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 스님)는 9일 오전 10시2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나무학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산사의 선식'을 주제로 한 무료 공개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는 아토피성피부염에 시달리는 유아이유식으로 대용할 수 있는 '연근죽'을 시연한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는 '작설차 전병말이'와 인스턴트 식품을 싫어하는 이들을 위한 '두부취나물죽순김밥'도 만들어 본다. 실습뒤에는 사찰음식 시식 시간도 마련된다. 02)355-5961

### 차생활지도자 최고과정 매주 토요일 오후 특강

한국차생활문화연구원(원장 김승희)은 6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차생활지도자 최고과정 특강'을 연다. 이 강의는 △13일 한복과 차생활 복식, 유화경(한국복식사연구원장) △20일 행다예절, 이김표(前 성신여대 가정대학원장) △27일 근대한국 차사(茶史) 조명, 운경혜란(사)태학당 당주) △8월 3일 한·중·일 차(茶) 그릇 비교, 강순형(덕수궁 유물전시관장) △8월 10일 청정 차(茶)음식 십선(十選), 선재 스님(사찰음식연구원장) △8월 17일 차(茶) 맛 제대로 내는 다법(茶法) 연구, 김승희(한국차생활문화연구원장)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732-9027

김홍근이 쓰는

## 문학 속의 불교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지내다보니, 하얗게 피었던 앞산의 밤꽃이 어느새 다 지고 말았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수더분하고 탐스런 그 모습이 보기 좋아 가까이 다가갔더니, 길다란 꽃술마다 벌들이 앵앵거리는 게 참 보기 좋았다. 무성한 녹음 속에 여기저기서 하얗게 핀 밤꽃들의 소박한 아름다움은 6월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

월드컵이 끝나고 축제의 열기가 식으면서 이제 단조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한동안 허전한 마음을 추스리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세대와 지역 간의 벽을 뛰어 넘어 전 국민이 하나로 단합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훌륭히 치러 내고, 또 길거리 응원을 통해 월드컵을 거대한 축제로 승화시켜본 경험은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둔 끔찍은 성적을 돌이켜 보니,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프랑스식 비법 이야기가 생각났다.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포도주 회사에선 대를 이어 내려오는 포도주 제조 비법이 있다고 한다. 사장은 임종시에 주위의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대를 이을 장남만을 불러 귀에 대고 소곤소곤 비법을 알려준다. "좋은 포도주는 좋은 포도로 만드는 거란다."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말은, 그러나 새겨보면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한국 축구가 거둔 성적은 선수들과 지도자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은 합당한 결과인 것이다.

### 똑바로 가시오

### 히딩크 감독의 지도방식 선수들 잠재능력 키워 창의적 축구 하도록

축구는 정직한 스포츠라서, 흘린 땀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법이다. 주위의 온갖 우려를 물리치고 묵묵히 정도를 걸어온 히딩크 감독은 마치 오대산 가는 길목을 지키는 노파처럼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였다. 무문혜개 선사가 편찬한 〈무문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 오대산 가는 길목에 한 노파가 살았다. 오대산 가는 길이 험하고 길어 이 성지를 찾아가는 스님마다 이 노파에게 길을 묻곤 했다. 어느 승려가 노파에게 길을 묻자, 노파는 이렇게 대답했다. "똑바로 가시오." 승려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떼 놓으면, 노파가 다시 말한다. "쯧쯧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먼."

좋은 축구팀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제 길로 똑바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잊혀두고 마냥 돌아서 헤맨다. 히딩크가 보여준 지도방식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속에 들어있는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창의적인 축구가 가능해졌다. 좋은 선생이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깨어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축구에 정답은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길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따라 무작정 돌려가길 얼마나 거듭해왔는가. 자신을 돌이켜보면 길은 자연히 나타나게 마련이건만, 우리는 소화도 안 되는 굳은 지식을 받아먹기에 바빴다. 한국축구의 선전을 보며,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숨은 뜻을 다시 새겨본다.

■문학평론가


# 영상법당! 불교텔레비전

•동국대 TV 불교아카데미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월)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화)
정토사상(수)
여래장사상(목)
한국 선사상 연구(금)
한국 불교사상사 연구(토)

혜거스님의 유식 삼십송강의
매주금,토요일 08:50 / 19:55

성운스님 불경강좌
매주토요일 10:15 / 20:35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매주수요일 09:20 / 19:15

구본일의 태교와 명상
매주화요일 09:20 / 19:55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매주목요일 09:20 / 19:15

최고의 진리 바로 당신의 소중함입니다.

불교TV후원 전화
060-700-1032(ARS)
한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www.btn.co.kr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8(공호전기빌딩)

불교TV시청방법 [ 유선방송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이프신청문의 (02)3270-3366~7]
불교TV방송프로그램 판매 [안내전화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불교텔레비전에서는 불교인터넷방송
불교위성방송을 하기 위하여
법당을 건립합니다.
큰 행복 큰 자유 누리고저
지혜와 복덕 구족하도록
큰 공덕 지으소서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회 장 석성우
대표이사 이수덕

• 삼천불은 청동불로 조성됩니다.
• 가족단위 원불조성도 가능합니다.
• 삼천불조성금은 분할하여 입금하셔도 됩니다.
• 법당위치: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45-2번지
(지하철2호선 봉천역 3번출구)
• 입금계좌번호 : 827-25-0015-134(국민은행)
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주)
• 문의전화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02)2648-0108,1211 사찰순례팀